農政改革 推進狀況 및 向後計劃

1996. 6. 14일자로 농림수산부의 「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」이 확정 시행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주요 농정개혁 추진성과와 향후추진계획을 게재하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Ⅰ. 農政改革의 成果

○ 文民政府 出帆과 함께 21세기를 대비한 「農政改革」을 汎政府的으로 추진한 결과,
○ UR협상 당시의 不安과 挫折感에서 벗어나 希望과 自信感을 되찾고 先進농어업의 목표를 향해 빠르게 進展
・농업인 의식조사('96. 1) : 농어촌 미래 희망적(80%), 수입개방에 자신감(63%)

1. 농어촌 생활事情의 好轉

□ '95년 農家戶當 所得이 2,200만원으로 '90年對比 2배로 늘어나 GNP 성장속도(1.7배)보다 빠르게 增加
○ 농가 所得源이 多樣化되어 農外所得비중이 높아지고 부채보다 저축이 1.7배가 많아 농가경제 구조가 健實化
・농외소득비율 : ('90) 26→('95) 32%
・농가호당 저축/부채 : ('90) 420/470(0.9)→('95) 1,540/920만원(1.7배)

□ 上水道, 입식부엌, 自動車, 컴퓨터 등의 보급이 확대 되어 농어민의 生活 水準이 크게 향상
・상수도 보급율 : ('90) 28→('95) 39%, 자동차 보급 : ('90) 20호당 1대→('95)3호당 1대

□ 農漁村인구의 감소추세가 鈍化되면서 전국 35,300개 마을중 3,100개 마을의 인구가 增加, 「돌아오는 농어촌」이 漸進的 實現
・농어촌 인구 감소율 : ('91/92) 4.9→('94/'95) 1.7%

2. 농어업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基盤擴充

□ 農特稅 新說 등 농어촌에 대한 정부투자를 大幅 擴大함으로써 農漁業構造調整이 빠르게 進展

○ 零細小農 중심의 單純生産에서 규모화된 전문경영체가 주도하여 생산·가공·유통을 포함하는 複合産業으로 발전

· 쌀의 경우 5ha이상 경영체(15,300호, 1%)가 쌀 생산의 10%를 담당

· 양돈은 500두이상 농가(8%)가 62%를 생산

○ 경기정리, 用水開發 등 생산기반 정비와 尖端 유리온실, 自動化畜舍 등 시설 현대화로 機械化營農과 技術農業의 기틀마련

· 트랙터, 콤바인 등 보급확대로 벼농사 기계화율은 96%(일본, 99% 수준)

□ 開放體制에 對應하여 경쟁력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作目轉換이 급속히 進展

○ 食糧作物의 生産比重이 줄고 축산, 채소, 과수 등이 급신장

· 농업생산액 비중 : 축산, 채소, 과수('90) 42→('95) 56%

○ 신선채소, 인삼, 돼지고기 및 전통가공식품은 成長有望品目으로 浮上하면서 농산물 수출의 牽引車 役割 담당

· 돼지고기 수출 : ('90) 32→('95) 89백만불, 김치수출 : ('90) 15→('95) 51백만불

□ 개방과 경쟁체제에 맞추어 「農地」, 「糧政」, 「市場·流通」, 「協同組合」등 農政의 기본이 되는 4大 制度改革 추진

3. 消費者 요구에 副應하는 商品産業의 進展

□ 단순한 增産爲主의 자세에서 自己地域, 自己商品을 고유브랜드화하여 생산·판매하는 體制로 전환

· 쌀의 소포장 브랜드 상품유통비율 : ('90)20→('95) 80%

□ 健康과 環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가에 부응, 품질향상 및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등을 통하여 輸入開放을 克服

○ 이러한 農政改革의 成功的 추진과 획기적인 投資擴大로 농어촌이 活力化되고 구조개선의 성과가 可視化되고 있슴.

○ 그러나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의 一部 不適切, 지원자금의 非效率的 사용, 사업간 優先順位 調整 등의 문제가 발견됨.

○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, 現場中心의 農政改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농어촌발전 綜合對策의 목표를 早期에 달성하고

○ 특히, 품질좋은 基礎食糧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尖端技術농어업과 輸出농어업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슴.

II. 向後 農政改革 推進計劃

1. 쌀산업 競爭力強化와 自給基盤 擴充

[최근 不安한 세계식량사정과 다가오는 統一時代에 對備
생산·유통·소득을 뒷받침하는 「쌀산업 발전 綜合對策」 추진]

1) 벼 栽培面積의 確保

○ 2004년까지 논면적 1,100천ha 確保(벼 재배면적 920천ha 維持)
- 체계적인 農地利用計劃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農地轉用 억제
  · 경지정리된 우량 논 전용시 농지조성비 등 차등부과
- 진흥지역 논에 대해 農業經營資金 특별지원등 혜택부여
- 개발중인 간척지는 早期營農이 가능토록 開畓爲主로 투자를 확대

○ 주택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山地를 활용하되 環境親和的 山地開發方式을 도입하고 負擔金 減免 등 제도 개선

2) 生產性 向上과 生產費 節減의 적극적 추진

○ 新品種 開發과 地力增進을 통하여 단위당 생산량을 증대

○ 2000년까지 米穀綜合處理場(RPC) 400개소를 쌀 주산지에 설치
· 全體 쌀生產量의 36%, 流通量의 42% 처리 가능

○ 生產基盤整備와 機械化를 통해 생산비를 2004년까지 35% 절감

3) 生產意慾 고취를 위한 秋穀수매제도의 發展的 개편

○ 쌀 수매는 事前豫示와 함께 下限價格을 保障하는 約定收買制로 개편하여 '97년부터 시행
('96 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)
- 播種期에 농가와 收買 約定하고 약정금액의 일정수준을 先渡資金으로 지급
- 약정농가는 收穫期에 농가선택에 따라 約定價(下限 保障價)대로 政府收買에 응하거나 市場에 出荷
  * 約定價에 의한 정부수매 물량이 不足할 경우, 狀況에 따라 필요량을 시가로 收買

○ 쌀값은 年間消費者物價 상승범위내에서 관리하되 季節振幅을 15%까지 허용하여 民間流通을 活性化

4) 쌀 생산농가의 所得支援을 위한 直接支拂制度 시행

○ 高齡農家의 소득안정과 經營移讓을 통한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直接支拂制度를 '97년부터 시행
- 나이많은 쌀농가가 專門經營體에 농지를 장기임대 또는 賣渡하는 경우, 所得補助金을 지급

○ 環境保全, 營農條件 不利地域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등은 계속 연구·발전시켜 段階的으로 도입 檢討

2. 尖端技術에 의한 본격적 輸出農漁業의 실현

□ 2004년까지 1조 7,000억원을 投入, 선진 技術農漁業을 이룩

○ 기술개발의 目標管理制를 도입, 획기적인 種子革新 추진
- 백합種球, 채소종자 등 輸入에 依存하는 우량종자의 年次別 國産化 計劃을 수립
- 한우雙子 生産技術과 인공씨감자 增殖技術을 農家實用技術로 보급
  • 인공씨감자 대량증식 기술개발로 수확량 30~50%증가, 보급기간 2~3년단축

○ 無人航空 防除시스템, 농작업의 로봇화 등 尖端技術 課題 300개를 선정, 중점 개발

□ 輸出農漁業의 活路開拓을 위한 支援強化

○ 돼지고기, 김치, 화훼 등 輸出有望品目을 중심으로 '96년 40억불, 2004년 100억불 輸出目標를 달성

○ 품목별 輸出專門團地를 조성하고 輸出支援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構築
  • 생산에서 포장, 저장, 운송, 상하역시설 등 종합 수출물류 시스템 구축

○ 농수산물 輸出保險제도를 개선하고 수출자금지원을 擴大
  • 수출보험 보상비율 확대 : 40→60%, 보험요율 인하 : 2~3→1%

3. 先進農業을 주도할 專門經營體 육성

□ 經營體에 대한 長期段階別 지원체계를 확립, 건실한 中小企業 수준으로 육성

○ 自營農高, 農業專門學校 등 농과계 졸업생을 後繼經營人力으로 우선 선정하여 전문경영체로 발전 유도

○ 2004년 專門經營體가 농업생산의 70%수준을 담당토록 육성
  • 전문경영체(12만호) : 쌀(6만호), 축산(3만호), 과수화훼 등(3만호)

○ 품목별로 先進經營모델을 설정, 目標管理 方式(Bench marking)에 의한 경영지도 및 상담을 體系化
  • 農村指導所의 經營相談機能을 강화하고 지역별 特性化大學의 최신 經營技法을 보급

□ 小規模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常時 營農體制를 확립하고 農外所得源을 적극 개발

○ 노는 땅, 노는 계절이 없도록 농가별로 農業經營을 多樣化

○ 미곡,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産地組合 등을 중심으로 系列化

○ 농어촌지역에 産地農水産物 가공공장, 特産團地 설치를 확대하고, 農工團地의 입주촉진을 위한 誘引策을 強化

4. 고품질·안전 농수산식품의 生産流通體系 확립

□ 농수산물 安全性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生産에서 出荷段階까지 集中的으로 점검·관리

○ 쌀, 배추, 딸기, 사과 등 20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, 重金屬 등 안전성 검사를 '96. 8. 부터 시행

○ 육류의 有害잔류물질 檢査를 실시하고 신선하고 衛生的인 우유공급을 위하여 酪農制度를 개편
  • 쇠고기, 닭고기는 금년 7월, 돼지고기는 '97. 1부터 抗生劑 등 7종의 유해물질 검사 실시
  • 우유 검사기준 강화, 축협 등 생산자단체로 集乳體制 一元化 등

○ 저온저장, 냉장운송 등 産地에서 小賣段階까지 冷藏流通體系(cold chain system)를 구축

□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環境農業 기술개발과 品質管理 강화

○ 저독성 농약, 緩效性 비료 등 環境親和型 자재개발로 2004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40~50% 절감기술 보급

○ 病害蟲 종합관리, 家畜糞尿 발효처리 등 低投入 농법 확대지원

○ 無農藥·有機栽培 환경농산물을 포함한 농수산물 品質認證制를 2004년까지 주요 품목으로 확대

5. 임산·수산자원의 效率的 이용과 경쟁력 강화

□ 「山地는 줄이되 山林은 늘린다」는 방향으로 산지이용체계를 개편하고 경쟁력있는 林業 육성

○ 산지를 機能과 利用目的에 맞게 生産林地, 公益林地, 準保全林地로 '96년말까지 개편

○ 생산임지의 秋有林經營 활성화를 위한 林業振興促進法제정 추진

· 기업체의 산림경영 참여유도 등 산림경영 규모화와 林道施設 확충 등 기반조성투자 확대

○ 임산물직매장,綜合加工流通施設 확충 등 유통구조 혁신

□ 새로운 海洋秩序에 대응한 수산업 構造改善 추진

○ 排他的 經濟水域(EEZ)선포에 대응하여 漁船勢力의 정비와 總許容漁獲量제도 도입등 어업자원관리 강화

· 주변국가와의 相互入漁 조업에 대비한 「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관리법」제정

○ 2004년까지 108천ha 연안양식어장 淨化등 어업기반을 확충하고 대규모 물류기지를 건설하여 宅配流通體系(Port to Door)구축

○ 2004년까지 415개 漁港을 開發, 어촌경제권의 中心地로 육성

6. 投融資 制度의 改編과 向後計劃

□ 투융자재원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一部 問題點을 근본적으로 개선

○ 사업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事前審査와 事後平價制 강화

○ 地方自治團體別로 사업시행결과를 정기적으로 評價, 優秀團體에 대하여 事業資金을 차등 지원

○ 현재 12단계 國庫補助 비율을 5단계로 대폭 縮小·統合하여 '97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

○ 各種 投融資事業은 單位事業別지원에서 경영체별 綜合支援방식으로 개선

□ '98년에 42조원 投融資計劃이 마무리 됨에 따라 2004년까지의 농특세 投資計劃과 연계하여 '99년이후의 농어촌發展計劃 수립

○ 構造改善의 마무리와 농어민의 福祉向上에 중점을 두고 事業間투융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투융자 效率性을 極大化

◇ 文民政府의 농정개혁 成果를 바탕으로 農漁業人과 政府 그리고 국민 모두가 合心하여
◇ 農漁業이 21세기 一流國家 건설의 礎石이 될 수 있도록 渾身의 努力을 다해 나가겠음.